

### 동반위, 두산인프라 등 4개사 동반성장지수 강등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법률을 위반한 두산인프라코어, 롯데마트, 현대건설, 한국미니스톱의 평가 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했다. 또 엘리베이터 제조업의 적합업종 지정은 피해사실 입증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서울 세라톤 팰라스호텔에서 제52차 회의를 개최하고 두산인프라코어·롯데마트·현대건설을 '우수'에서 '양호'로, 한국미니스톱을 '양호'에서 '보통'으로 각각 한 단계씩 낮췄다.

이날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동반위의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기업별 평가결과 발표 직후, 하도급법·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점수 감점 및 등급 강등을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동반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유용했으며, 현대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받은 뒤 조정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며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또 롯데마트는 사전에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로부터 증업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고, 한국미니스톱은 납품업자에게 계약사항이 누락된 서류를 발급하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각각 위반하며 강등됐다.

특히 우수등급이었던 두산인프라코어와 롯데마트, 현대건설은 등급이 내려감에 따라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 부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이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별 가점 부여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등 우수등급에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취소됐다.

반면 오비맥주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점수 반영으로 기존 '미흡'에서 '양호'로 한 단계 등급이 상승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한편, 동반위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에 대

업 관련 권고사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초등학교용 학용문구 18개 품목 묶음판매, 신학기 할인행사 중단, 등 사업축소가 주요 권고내용이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두산인프라코어 등 4개 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크게 어긴 사실이 적용돼 강등된 것"이라며 "또 OB맥주는 공정위가 제출받은 이행평

하도급법 위반 이유...우수등급 인센티브 취소

엘리베이터 제조업 중기적합업종 신청은 반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이 10일 서울 세라톤 팰라스호텔에서 열린 제52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은 반려했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불명확하고, 중소단체에서 자료제출 요청에 '미제출' 및 '제출사실 없음'을 표명함에 따라 논의할 수 없다는 이유다.

아울러 앞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했던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아성다이스 직영점을 포함시켜 문구소매

가점수를 뒤흔게 반영해 통보함에 따라 이번 등급조정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엘리베이터 업종의 지정신청은 신청자 쪽에서도 소극적이었고, 어떤 피해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이 어려우며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도 원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양진영 기자 camp@

### 삼성전자 등 8개 대기업, 중기에 6조2000억 펀다

#### 동반위, 임금격차 해소 운동 협약식 개최

#### 거래대금 결정시 협약기업과 적극 협의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약 맺고 있는 대기업들이 협력기업에 3년간 약 6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경영안정화를 돕기 위해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세라톤 서울 팰라스 강남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롯데백화점, 삼성전자, 씨제이제일제당, 에스케이하이닉스, 엘지화학, 지에스티에이, 포스코, 현대·기아차 등 동반위의 8개 대기업 위원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올해부터 3년간 총 6조2000억원 규모의 협력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기로 했다.

금융지원을 통해 협력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과 더불어 임금지불 능력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또 협약대기업들은 거래 대금의 단가 결정, 지급 등에서도 협약기업과 협의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단가 결정 시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부품 등의 시가, 적정 관리비 및 이익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수준에서 협의하고, 거래 기간에 단가 변경 사유 발생으로 조정 신청이 있을 때는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협력기업 또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협약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사 협력기업과의 거래에서도 대금의 결정, 지급 시기 및 지급 방식과 관련해 협력 대기업의 이행사항을 동일하게 준수하고, R&D 능력제고,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을 강화해 협약 대기업의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 경쟁력을 높

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 등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운동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협약 내용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협약 당사자와의 협의 및 정기적 점검을 수행하기로 했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동반위 의결 이후 6개월에 걸친 협의를 통해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8개 대기업 위원사에 국한하지 않고 동반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일부 공기업도 올해 중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진영 기자



10일 세라톤 서울 팰라스 강남호텔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동국실업, 노사 상생협력 선포

#### 자동차 1차 부품사 입지 확고히

동국실업(대표 김진산)은 최근 자동차부품업계의 위기 속에서 '위기경영극복을 위한 노사 상생협력 선포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 측은 노사 상생협력 관계를 통해 자동차 1차 부품사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각오다.

동국실업 관계자는 "노사가 중국 경제성장 둔화, 신흥시장 경제 위기 우려, 미국의 자동차 관세 폭탄 등 자동차부품업계의 위기 상황을 공감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합



동국실업 노사 관계자들이 '노사 상생협력 선포식'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의를 도출했다"며 "이번 선포식을 통해 회사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노사 간 신뢰를 더욱

송세준 기자

### 슈나이더 일렉트릭

## '트라이코넥스...' 버전 11.3 출시

슈나이더 일렉트릭(지사장 김경록)이 자사의 안전 시스템인 '에코스트럭처 트라이코넥스'의 가장 강력한 버전인 '트라이코넥스 트라이콘 CX' 버전 11.3을 출시했다.

신제품 '트라이코넥스 트라이콘 CX(Tricon CX)'는 대표적 공정 삼중화 안전 시스템으로,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이버 보안 기능을 탑재했다. 또 고성능 및 고용량의 특성과 함께 수명 기간 동안 유연성을 제공한다.

국제적 기준인 IEC 62443 표준을 준수하고 TV 라인란드(TV Rheinland)에서 인증 받아 안전 무결성 레벨3(SIL3)까지의 안전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다.

또 ISASecure EDSA Level-1 인증도 받았다. 이는 제어, 안전 및 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한 업계 최고의 사이버 보안 인증이다.

Tricon CX 버전 11.3은 석유 및 가스, 정유, 석유 화학, 발전, 기타 고위험 산업에 적용되며, 안전, 사이버 보안, 위험 완화, 운영 지속성의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또 이 제품은 장점은 75만개 이상의 물리적 I/O 포인트를 처리할 수 있고, 기존 제품과 동일한 프로그래밍 툴을 활용한다. 이 때문에 엔지니어링, 설치, 구성, 운영, 유지보수가 간편해 지속적이고 안전한 운영이 가능하다.

게다가 버전 11.3을 활용하면 설치비용이 30%까지 절감되며, 생산성을 5%까지 증대할 수 있다. 슈나이더의 다른 안전 시스템 애플리케이션과 호환도 된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공정 자동화의 공정 안전 부문 부사장인 마이크 흐미엘레프스키는 "신제품은 업계에서 인정받은 SDL(보안 개발 수명 주기) 프로세스에 따라 설계됐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한다"며 "자사는 글로벌 시험인증 기관인 TV 라인란드로부터 안전 삼중화 및 사이버 보안 인증을 동시에 획득한 첫 번째 공급업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장 없이 10억 시간 이상 운영한 기록

#### 업계 첫 이중 인증 공정 안전 컨트롤러 적용 가치 증시 S/W...ROI 최대 11% 증대 가능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기존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트라이코넥스 트라이콘 CX' 버전 11.3을 출시했다.

으로 업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첨단 에코스트럭처 트라이코넥스 안전 계측 시스템은 안전성과 보안성을 갖춘 운영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보여준 최신 사례"라며 "Tricon CX 버전 11.3은 안전성을 실현하면서 고객의 자산, 인력,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덧붙였다.

이석희 기자 xxi@

### 중소기업계, 주휴수당 폐지 추진

#### 중기중앙회

#### 노동인력특별조사...노동현안 논의

중소기업계가 추가 인건비 부담요인으로 지목되는 주휴수당 폐지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기)를 열어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근로시간·최저임금 등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세계적으로 인건비가 거의 없는 주휴수당으로 인해 기업들은 20%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더해져 임금체불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휴수당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어나고, 임금수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준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규정해 영세기업의 법 준수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중소기업의 구조적 장시간 근로 문제 대응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논의했다.

신정기 위원장은 "저성장시대를 맞아 노동현안 문제로 인

한 사회적 갈등이 큰 상황이며,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소모적 논쟁은 계속 될 것"이라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 근거 마련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시급한 노동관련 입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세준 기자 21ssj@

#### 전경련, 17일

### '2018 글로벌기업 청년 취업설명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18 글로벌기업 청년 취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한미경제회의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이번 취업설명회는 글로벌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우리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HR 솔루션 기업인 켈리서비스는 '글로벌기업 취업전략', 맥도날드 코리아는 '글로벌 기업에서의 성장 기회', 위워크 코리아는 '유니콘 스타트업의 성공사례와 혁신적 인재채용 방향' 등을 주제로 취업전략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우리 정부의 청년 취업연수 프로그램인 WEST(Work, English Study, Travel)를 통한 미국 현지 근무 방안도 소개된다.

전경련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전체 법인의 2.7%에 불과하나, 고용의 5.7%를 점유하고 있어 우리 청년들이 도전할 기회가 많다고 판단, 이번 청년 취업설명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석희 기자